

“한국의 천도교와 사회적 기능”에 대한 논평

정 영 훈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 노교수의 논문은 천도교의 사회사상을 잘 요약해주고있다. 실제로 천도교는 다른 어느 한국종교보다 풍부한 사회적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인간의 지위를 하늘의 지위로까지 높였던 시천주-사인여천-인내천사상이나, 모순과 부조리에 가득찬 세계를 정의와 진리와 복지로 가득찬 세계로 바꾸려한 후천개벽사상, 또 사회성원들에게 강한 공동체결속과 유대-연대성을 촉구하는 동귀일체론 같은 이론은, 천도교가 단순히 개인개인의 기복과 영적 구원에만 만족하고있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천도교가 (그 이전의 이름은 다아다시피 동학인데) 동학혁명이라는 우리 근대사의 가장 큰 사건중 하나의 주역이었고, 삼일운동의 중심이었다는 것은 그같은 실천적 지향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물론 천도교 교리에는 천운(天運)론-무위이화(無爲而化)론 같이 인간의 인위적 노력에 대해 소극적인 면도 있다. 실제로 동학의 교리는 후천개벽을 말하면서도 사회변혁을 위한 직접적인 행동을 촉구하진 않고 다만 수심정기(守心正氣) 같은 종교적-도덕적 수양을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후천개벽론과 사인여천-인내천사상은 단순히 민중-교인들에게 해방과 구원에 대한 기대감을 제고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실천의지를 촉발했음에 틀림없다.

2. 정치사를 보더라도 특정의 종교를 배경으로 해서 정당이 결성된 사례는 천도교뿐이 아닌가 한다(물론 정부수립후로 넘어오면 기독교나 불교쪽에서도 정치세력화한 사례가 있지만, 그것은 한참 뒤의 일이다). 항일운동기를 통해서 천도교신도

들은 청우당이나 보국당이니 하는 정당을 결성해서 활동했었다. 이들 정당은 말하자면 천도교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정당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대개 좌우익의 대결과정에서 중도파진영에서 활동했었다. 천도교의 사상지향으로 보아 그것은 당연한 결론이라 할텐데, 그런데 다아다시피 정치사의 추이는 극우-극좌의 극단세력들이 남북에 서로를 적대하는 정권을 세우는 것으로 끝났고, 그 과정에서 중도파는 남과 북의 어디에서도 자기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물론 북한에 천도교청우당이라는 정당이 있지만, 그 정당이 독자적인 자기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장식정당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논평자는 천도교가 오늘날, 그 교세가 전만 못한 이유는 냉전체제가 남북의 정치적-경제적-사상문화적 상황을 배타적으로 규제해온, 그러한 정치적 환경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3. 논평자는 오늘의 천도교를 보면 일종의 안타까운 마음 같은 것을 갖는다. 과거 한국사속에 그렇게 큰 흔적을 남겼던 종교인데도, 오늘날의 상황을 보면 교세나 사회적 활동면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오늘 발표논문주제에서는 빠져있지만, 대종교에서도 같은 느낌을 갖는다. 대종교가 독립운동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독립운동사를 통합 최대의 승전으로 평가되는 청산리대첩이나, 또 그 교인들이 임시정부를 비롯해서 국학이나 교육방면에서 활약하고 기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공헌이 지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찌보면 이들 천도교나 대종교는 오늘날, 과거에 선배들이 해놓은 업적을 후광삼아 근근히 버티고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 있다. 발표자 노교수가 그같은 희망을 표명했듯이 논평자도 역시 천도교가 이전의 활력을 되찾아서, 사회적 기능의 방면에서도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해본다.

4. 논평자는 오늘과 같은 주제의 문제제기가 자주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다. 한국의 종교는 교세확장이나 개인기복 같은 문제에만 몰두하지말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고 분위기를 바꾸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80년대 이후 민주화의 결과로, 제도와 법에 대한 개

혁은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제도개혁만으로는 안된다. 구성원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특히 논평자는 우리사회에 팽배되어있는 개인이기주의와 황금만능주의 풍조가 개혁되지 않고는, 우리사회는, 요행히 경제위기는 해소되더라도, 이같은 문제들이 개혁되지 않고서는 결코 선진 복지국가로 나갈 수 없다고 본다. 요즈음 신자유주의니 세계화니 경쟁사회니 하면서, 연대성이니 복지니 약자에 대한 배려니 하는 사회적 가치보다, 개인자유와 창의성과 경쟁력과 같은 가치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높은데, 그러나 우리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하기 위한 처방과 결단들이 없이는 우리사회는 잘못하면 '만인의 만인에 대한 이리'로의 삭막하기 짝이 없는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다. 이점은 물론 제도적-정책적으로도 보완을 요구한다. 그러나 제도개혁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사회성원들의 의식을 바꾸는 일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의식과 가치관을 바꾸는 일은 정부나 권력이 할 수 없으며, 학교 교육 역시 한계가 있다. 이 문제는 다른 어떤 부문보다 국민의 영적-정신적 복지를 담당하는 종교부문이 맡아야 하는 부분이다. 논평자는 천도교의 교리는 이같은 상황들에 대해 다른 어느 종교에 못지않게 문제를 제기한다고 본다. 노교수가 표현했듯이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는' 천도교의 사회적 역할은 동귀일체-인내천의 이념을 상기한 현실적 문제와 관련하여 재해석해내고 교인들과 함께 실천하는 작업에서부터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다.